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

한은 "휴대폰·반도체 수출 등 늘면서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특허권 수지 등 크게 늘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수출이 날개 달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00만달러 흑자로 지난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국제거래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흑자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만성 적자를 주도해온 국내 대기업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덕분에 지난해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19억9000만달러로 2016년(18억6000만달러 적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수출액은 120억7000만달러, 수입액은 140억6000만달러였다.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주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탓에 적자 폭이 컸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대기업의 수출이 대폭 늘면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가 13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년(19억9000만달러 적자)보다도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든 대신, 베트남 등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휴대폰이나 반도체 수출 등이 늘면서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서의 특허권 수지 등이 크게 늘었다"면서 "현지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특허권 수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4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년(2억70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수출이 늘어난 국내 대기업들이 광고 제작비 등을 늘렸기 때문이다. 사드 갈등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의 여파로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지난해 음악·영상 수지는 4억5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낸 국내 대기업과 달리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30억3000만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IT기업을 중심으로 상표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입 등이 불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7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고,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는 8억8000만달러 흑자로 전년(11억1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줄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2억6000만달러 흑자로 전년(16억1000만달러)에 이어 흑자 기초를 지속했다. /뉴시스

1월 민간아파트 분양가 314만원... 전월비 0.73% ↑

지난달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당 평균)는 314만원으로 한달전에 비해 0.7%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1월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분양가격 동향은 최근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전국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집계·분석한 것이다.

분양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올해 1월말 현재 314만원으로 전월대비 0.73% 상승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8.38% 올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60만원으로 1.17% 상승했고 ▲5대광역시 및 세종시는 0.31% ▲수도권과 5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기타지방은 0.8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지역은 상승했고, 8개 지역은 보합세를 보였으며, 1개 지역은 하락했다.

서울은 평균 분양가가 662만3000원

으로 전월(670만6000원)보다 1.24% 하락했다. 1년전(645만원)에 비해서는 2.68%상승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도봉구에서 41세대가 신규 분양된데다 중구가 집계대상에서 빠져면서 분양가를 끌어내렸다고 HUG는 전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과천시와 집계대상에 포함되며 ㎡당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6.32% 상승한 384만 6000원을 기록했다.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는 1만891세대로 전월(2만383세대)대비 47% 감소했다. 1년 전(2004세대)에 비해서는 44% 증가했다. 수도권 신규분양물량은 3077세대로 전년 동월(720세대)대비 327%가량 증가했고, 5대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1430세대로, 분양이 없던 전년동월대비 늘어났다.

수도권과 5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기타지방의 신규분양세대수는 6384세대로 전년동월(1284세대)대비 397%가량 증가했다. 이달 전국 분양물량의 5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뉴시스

"군산공장 폐쇄, 한국지엠 살리기 위한 조치다"

지엠(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지난 3년 동안 20% 수준의 낮은 가동률을 꼽았고, 한국지엠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20일 뉴시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지엠은 지난해 군산 공장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고 심사숙고한 끝에 생산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한국지엠이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건은 이어 "이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며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세 곳에서 두 곳으로 차량 생산기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 생산물량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했다. 현재 예측 물량으로는 모든 생산 사업장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0여명에 해당하는 군산공장 직원들에게 상당 규모의 희망 퇴직금을 제공하고, 전직 지원 프로그램(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및 기타 전환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사의 지원 프로그램을 거부할 경우 강제해고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질문에 대해 지엠(GM)은 "현시점에서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다. 원활하고 순조로운 사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엠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한 중요한 길잡이에 있다. 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지엠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 한 결정을 내리는 2월까지 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LX, 국내 선진토지정보기술 미얀마에 전수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내 선진 토지정보기술을 미얀마에 전수한다.

20일 LX에 따르면 미얀마 팻 나잉 우(Thet Naing Oo) 농업관리정보부 청장과 공무원, 기술자 등 6명을 초청해 오는 23일까지 연수를 진행한다.

LX는 첫날인 지난 19일 LX글로벌센터에서 장비 기증식을 통해 6대의 야전용 랩톱 컴퓨터를 미얀마 측에 전달했다.

미얀마 연수단은 20일부터 서울 성북구청과 국토연구원, 세종시를 차례로 방문해 한국의 국토정책과 토지정보시스템을 체험하고 벤치마킹한다.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원이 발주해 LX컨소시엄이 체결한 '2017·2018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분야 미얀마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이다. /뉴시스

순창메주 홈쇼핑 채널 전국적 '인기 물이'

10회 방송 예정... 6000세트 완판 신화

순창메주가 홈쇼핑 채널에서 전국적 인기 물이를 이어가면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브랜드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군은 지난 13일 국내 유명 홈쇼핑 채널을 통해 첫 판매된 순창메주가 당초 방송분량 6,000세트를 모두 판매했다고 밝혔다. 추가 분량을 합하면 이날 판매된 순창메주는 6,200세트 약 4억원 가량이다. 또 15일과 19일 3회 방송분에서도 15,800세트의 판매량을 올리며 전국적 인기 물이를 이어가고 있다.

순창장류(주)에 따르면 2월 28일까지 국내 유명 홈쇼핑 3사를 통해 총 10회 가량 방송이 예정되어 있어 지난해 600여톤의 순창콩을 매입해 만든 메주가 모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순창메주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전통메주의 맛은 살리면서 시설회사와 첨단 발효기술을 접목해 위생적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즉 어머니의 손맛은 그대로 담고 위생은 한층 강화된 메주가 현

대인들의 소비 취향에 들어맞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순창메주는 지역 농민과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한 100% 순창콩과 100% 천일염을 사용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특히 전통메주에서 추출한 고초균과 황국균을 사용해 만들어 청국장의 풍미와 진한 전통된장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갈슘, 갈름, 미네랄 등이 풍부한 특징도 인기의 한몫을 하고 있다. 더욱이 HACCP 인증, 로하스 인증, 전라북도지사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들이 믿고 살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주)는 지난해 600여톤의 콩을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 한데 이어 올해도 600여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처 역할은 물론 홈쇼핑이라는 새로운 유통시장 개척이라는 역할도 해내고 있는 것.

순창장류 관계자는 "순창의 우수



순창메주가 홈쇼핑 채널에서 전국적 인기 물이를 이어가면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브랜드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한 재료로 만든 순창메주가 믿을 수 있는 웰빙식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면서 인기물이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민과 계약재배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순창을 홍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특히 장류제품의 판매 및 수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통장류의 현대화를 통한 장류산업 성장을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10년 군 출자기관으로 설립됐다. /순창=이영원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